



WithHEBRON
위드헤브론

HEBRON MEDICAL CENTER

2020 ANNUAL REPORT

Cure, Care, and Cherish All



위드헤브론 2020 연차보고서

발행처 위드헤브론

편집인 진은경 박명지

기획 김백현 김진화

사진 및 디자인 김백현

지원 강지훈 이진곤

위드헤브론 연차보고서는 기획부터 디자인, 편집까지 모두 직접 제작합니다



CONTENTS

01	사업 보고
02	위드헤브론 사업
04	헤브론의료원 사업
06	회계 보고
08	위드헤브론 회계
10	헤브론의료원 회계
12	헤브론 이야기
	한 해의 주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2	헤브론 2021
44	한 해를 돌아보며





사업 보고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 만든 기적을 한 눈에

■ 위드헤브론 사업

■ 헤브론의료원 사업

|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 만든 기적을 한 눈에

위드헤브론 사업

올 한 해 위드헤브론 국내외 협력기관과 후원자님의 소중한 나눔으로 캄보디아는 아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COVID-19의 여파와 후원금 감소로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의약품과 일반물품 후원이 증가하여 헤브론의료원에 찾아오는 소외계층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봉사팀 방문이 제한되어 진료 및 수술지원 역시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하였으나, 현지 의료팀의 헌신으로 현지역량으로 가능한 모든 심장수술 및 외과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캄보디아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COVID-19와 홍수를 포함해 캄보디아에 닥친 여러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멈추지 않고, 위드헤브론은 헤브론의료원을 통해 소외계층 환자의 고통을 통감하고 그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협력기관의 협력과 소중한 후원을 통한 병원지원

전문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 지원

후원 1,889,511,611원 지원

구매 92,657,329 원 지원

■ 전문의료기기 지원내용

요관내시경, 부화기 및 항온기, 원심분리기, 디지털 X-Ray기, 수술등

■ 전문의약품 지원내용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제, 건위소화제, 골격근이완제, 구충제, 국소마취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기타의 대다성 의약품, 기타의 비노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기타의 외피용약,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기타의 호흡기관용약, 기타의 화학요법제, 난포호르몬 및 황체호르몬제, 단백아미노산제, 당뇨병용제, 동맥경화용제, 무기질제, 부신흉르몬제, 부정맥용제, 비노생식기관용제(성병예방제 포함), 비타민B제, 소화성궤양용제, 순환계용약, 안과용제, 이노제, 이비과용제, 전신마취제, 정신신경용제, 정장제, 제산제, 진경제, 진통, 진양, 수렴, 소염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용약, 통풍치료제, 피부연화제, 항생물질제, 항악성종양제, 항히스타민제, 해열, 진통, 소염제, 혈압강화제, 혈액대용제, 혈액응고저지제, 혼합비타민제, 화농성질환용제, 화학요법제, 호소제제

병원 운영 지원 145,765,466원 지원

심장 수술 지원 13,358,107원 지원

환자 치료 지원 협력기관 후원 및 구매한 전문 의료기기 및 약품을 헤브론의료원으로 전하여 57,037명의 환자치료를 지원

■ 선천성심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 Care After Program) 지원

37명 수혜 아동 수

777,381원 아동 1인당 평균 지원액

*캄보디아 현지 지원내용 총합

3.8회 아동 1인당 평균 대면 인터뷰 횟수

7.5회 아동 1인당 평균 비대면 인터뷰 횟수

3.5회 아동 1인당 헤브론의료원 평균 내원 횟수

■ COVID-19 및 홍수피해 지원

COVID-19 구호물품 지원

마스크, 손세정제, 방호복, 연막방역기, 열화상카메라, 비접촉체온계
15,827,580원 상당의 COVID-19 구호물품 지원

홍수피해 지원

13,398,909원의 홍수피해 재난지원금을 헤브론의료원을 통해 피해지역 가구와 소외계층환자에게 지원



후원받은 전문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선적하는 과정



선적물품을 차량에 싣기 전에 물품별로 분류한 모습

I 소중한 나눔으로 함께 만든 기적을 한 눈에

헤브론의료원 사업

2020년은 헤브론의료원의 책무를 철저히 실천하는 한 해였습니다. COVID-19와 홍수 피해로 대규모 실직, 주거 상실로 이어졌고 이는 취약계층 확대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취약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였고 캄보디아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레지던트 전문의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휴교령 속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통해 간호대학생 육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헤브론의료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만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을 다졌습니다.

■ 헤브론의료원의 존재 이유, 캄보디아 소외계층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 캄보디아의 의료자립을 위한 노력, 인재양성

레지던트 전공의 양성

캄보디아 차세대 의료인 양성을 위한 3년제 수련 프로그램,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레지던트 전공의가** 헤브론의료원 전문 의료인의 지도 아래 실습과 훈련을 통해 의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호대학 운영

한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우수한 교수진의 지도 아래 67명의 간호대생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록수장학재단의 간호대학 장학금 9,970,800원과 모유사랑의 2,085,000원의 후원금을 간호대학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사무국을 통해 19,568,418원의 후원금을 간호대학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소화기내과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 교육

캄보디아 **현지 의료진 24명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컨퍼런스를 통한 사례 연구와 전문의료지식 전수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

전북은행의 후원으로 캄보디아 PPC 은행의 협조 하에 캄보디아 우수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5,933,046원 지원**

■ 현장중심 의사결정을 위한 조직개편



의료원장
김우정



병원장
이영돈



부병원장
배기안



진료부장
이치훈



간호과장
Lach Sambo



행정부장
Huoy Kea

캄보디아는 다양해지는 비전염성 질병과 COVID-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의 노출위험에 비해 이를 치료하고 돌볼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은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조직을 가다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봉사자는 지도자로서 현지 직원을 돕고 리더를 육성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현지 직원들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갖고 각 팀의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회계 보고

올곧고 정직하게 후원자님의 사랑이
온전히 캄보디아로 전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 위드헤브론 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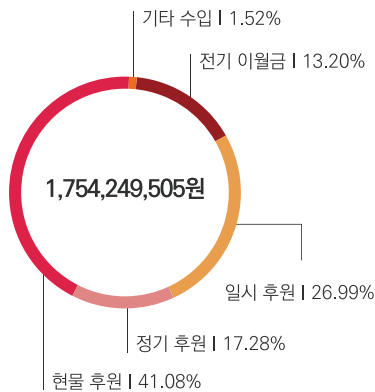
■ 헤브론의료원 회계

올곧고 정직하게 후원자님의 사랑이 온전히 캄보디아로 전해질 수 있도록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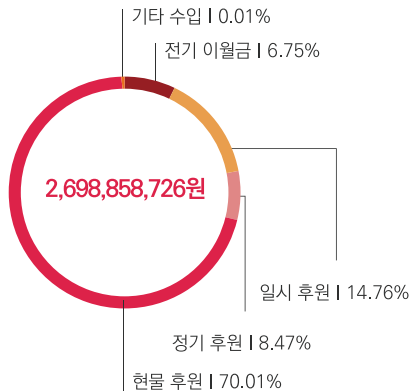
위드헤브론은 부패에 대한 무관용적 대응,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CBA, CEA), 청렴한 집행 확인을 위한 엄격한 감사, 유무형 후원내역서의 공공열람, 그리고 후원자와 후원금이 명시된 법인계좌를 통한 입출금 관리로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위드헤브론 수입·지출 내역

2019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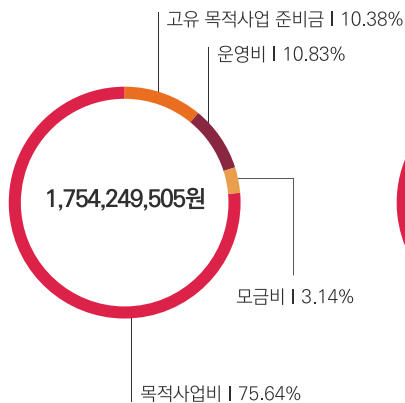
2020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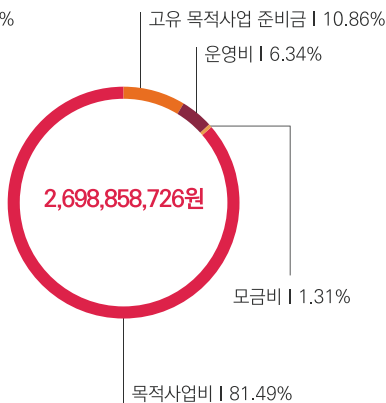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전기 이월금	231,576,370	182,120,074
정기 후원	473,463,823	398,296,248
일시 후원	303,162,232	228,690,000
현물 후원	719,404,384	1,889,511,611
기타 수입	26,642,696	240,793
총 수입	1,754,249,505	2,698,858,726

*기타 수입은 은행 이자 수입과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2019년 지출



2020년 지출



	2019년	2020년
목적사업비	1,326,926,256	2,199,371,743
운영비	190,035,450	171,080,428
모금비	55,167,725	35,378,414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182,120,074	293,028,141
총 지출	1,754,249,505	2,698,858,726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은 의료봉사팀에 의존한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심장수술 목적 후원금 1억원 등은 2021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후원금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공익회계법인기준]에 따라 모금하고 관리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후원금을 관리하고 회계법인에 후원금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최종적으로 내/외부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윤리적인 조직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연간기부금활용실적서를 국세청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후원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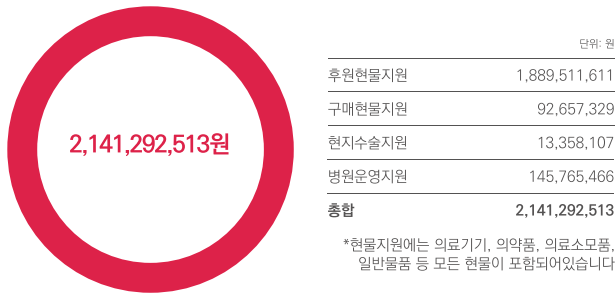
▷후원금은 사업계획에 맞춰 사용됩니다

사업수행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합니다. 수립된 사업계획과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여부가 결정되고, 예산집행현황을 이사회에 매월 보고하여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에 사업실적과 함께 결산내역을 총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습니다. 이 또한 주주관청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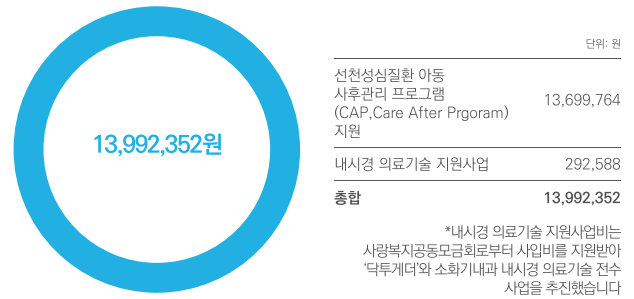
■ 목적사업비 세부내용

의료기기, 의료소모품, 의약품, 그리고 현지 수술지원과 헤브론의료원 운영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사업, 심장수술을 받은 아동을 돌보는 선천성심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 Care After Program)과 이동진료를 지원하는 '지역개발' 사업, 그리고 간호대학, 의료진 수련, 행정직원 양성을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으로 분류합니다. 후원금 또한 각 사업별로 분류하여 집행하고 사업진행과 결과를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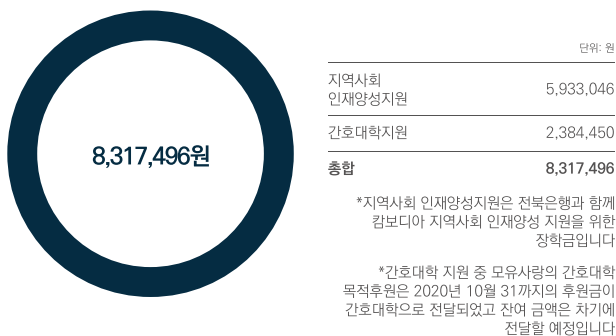
■ 해외의료지원



■ 해외지역개발



■ 해외인재양성



■ 사업수행



■ 긴급구호지원사업 13,474,282원

■ 더 많은 현물을 헤브론의료원에 전했습니다

위드헤브론은 헤브론의료원이 전문의료기관역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헤브론의료원의 요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선적을 진행합니다.

	의료기기	77,316,475원
	의약품	1,849,126,172원
	일반물품	68,694,400원
	COVID-19 예방 및 방역물품	15,827,5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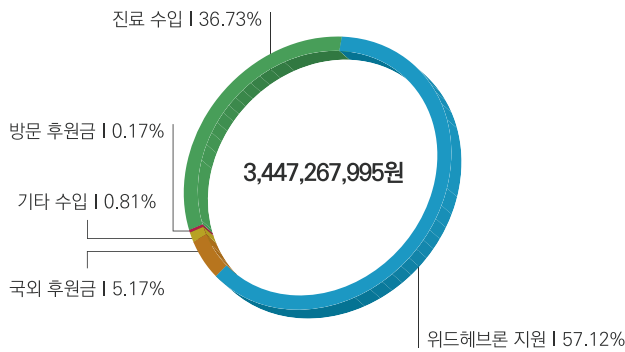
2020년 2분기 선적 | 안 수술기기 야그레이저 선적 | 2020년 3분기 선적 | 이동진료용 버스 선적 | 2020년 4분기 선적

I 헤브론의료원은 헤브론 설립정신을 계승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비, 시설 유지비 그리고 100여 명의 현지직원 급여 지출이 후원의 변동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의료지출이 가능한 환자에게는 비용을 받고 그 비용이 부담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재정관리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 수입·지출 내역

2020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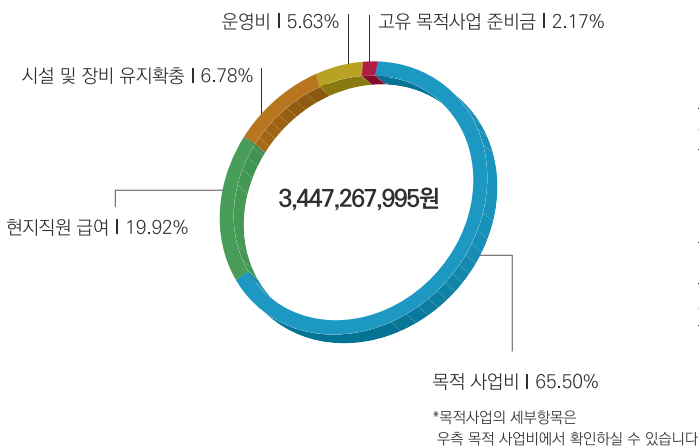


단위: 원
2020년

위드헤브론 지원	1,969,227,611
진료 수입	1,266,254,656
국외 후원금	178,206,784
방문 후원금	5,716,352
기타 수입	27,862,592
총 수입	3,447,267,995

*기타 수입은 은행 이자 수입과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위 금액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환율을 따릅니다

2020년 지출



단위: 원
2020년

목적 사업비	2,257,788,899		
• 환자진료 사업비	2,146,459,131	• 긴급구호지원 사업비	13,474,282
• 심장수술 사업비	41,499,584	• 레지던트 양성 사업비	10,420,864
• 선천성심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 Care After Program) 지원비			27,250,048
현지직원 급여	686,733,632	운영비	194,152,666
시설 및 장비 유지확충	233,663,232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	74,929,566
총 지출	3,447,267,995		

▷헤브론의료원은 캄보디아 보건부, 외교부, 그리고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ambodia Development Council, CDC)에 운영과 회계를 매년 보고하고 인가를 득하여 비영리병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은 캄보디아의 모든 순간 함께 했습니다

■ 위드헤브론 이사장 김해수

2020년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은 큰 변화 속에서도 쉬지않고 성장하였습니다. 위드헤브론은 후원물품 전달과 더불어 병원 의료와 행정 지원, 봉사자 관리, 국내외 협력 사업진행, 긴급구호 등을 통해 헤브론의료원이 맡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전범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COVID-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브론의료원은 지속적인 예방과 방역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한결같이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두에게 힘든 한 해 였지만 기관의 비전과 미션을 재정비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로 용기와 평안을 얻어 캄보디아의 아픈 이들 곁에서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살피고 상황이 어려워 홀로 아픔을 이기는 병원 너머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도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도움의 목적이 수혜자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의사공동체가 되어 선(善)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You will always
have a special place
in my he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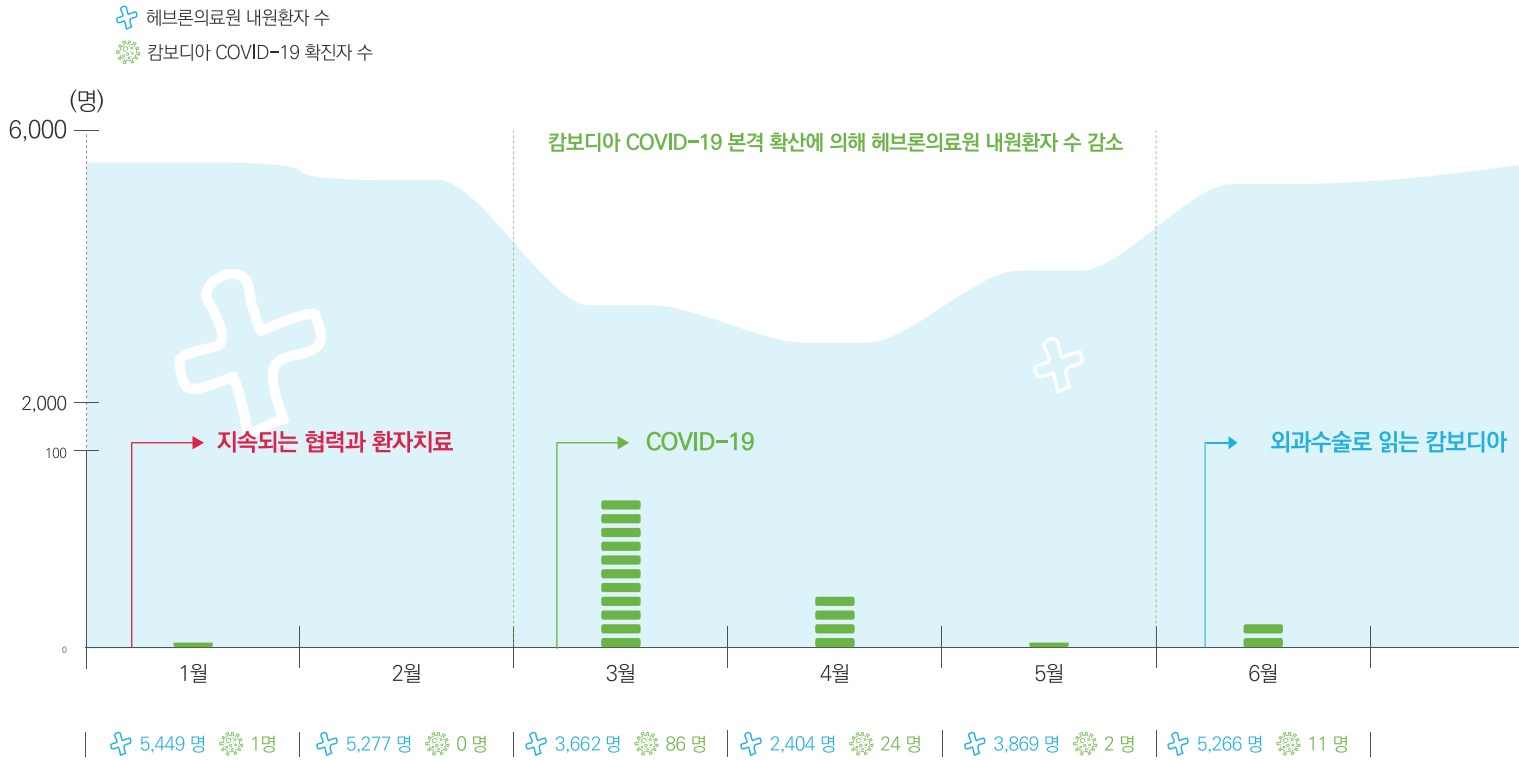
헤브론 이야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헤브론의 주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2020

헤브론 이야기 키워드

2020년 헤브론의 주요 키워드를 모았습니다



지속되는 협력과 환자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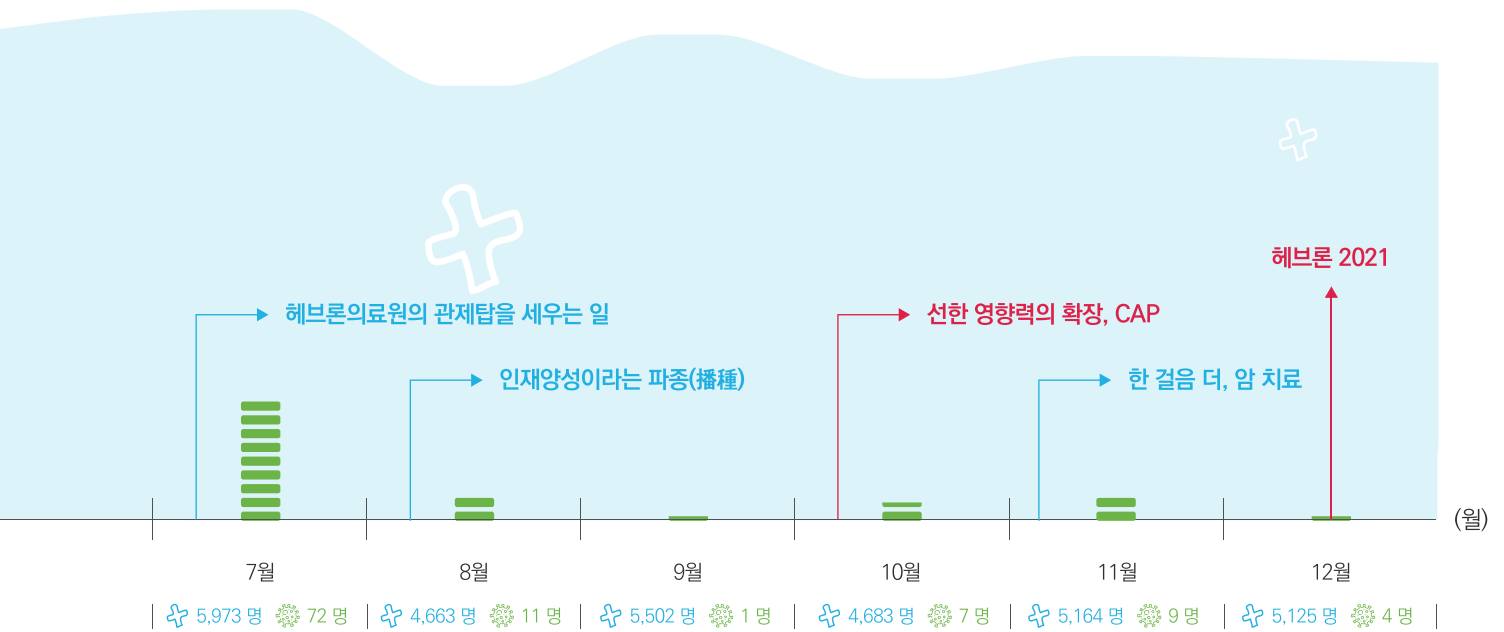
- ▶ 협력기관과 봉사자의 협력에 힘입어 소외계층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 ▶ 국내에서 보낸 소중한 사랑을 소외계층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COVID-19

- ▶ 2020 COVID-19 캄보디아
- ▶ COVID-19 대유행 속에서도 헤브론의료원은 본분을 다했습니다
- ▶ COVID-19로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헤브론의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외과수술로 읽는 캄보디아

- ▶ 외과수술을 통해 헤브론은 도약하고 있습니다



■ 헤브론의료원의 관제탑을 세우는 일

▶ 더 많은 소외계층환자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 인재양성이라는 파종(播種)

▶ 캄보디아 의료인재양성, 자립이란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 봉사와 헌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 선한 영향력의 확장, CAP

▶ 병원 담장 너머의 캄보디아를 품습니다

■ 한 걸음 더, 암 치료

▶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아픔을 어루만지겠습니다

■ 헤브론 2021

▶ 아프지 않은 캄보디아,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합니다

협력기관과 봉사자의 협력에 힘입어 소외계층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에 합격한 념 라코나의 모습

선천성심질환 수술 소년이 헤브론의 전인적 지원 아래 캄보디아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선천성심장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 Care after Program) 아동인 념 라코나가 International University 의과대학 합격하였습니다. 념 라코나는 심방중격결손증(ASD)으로 2013년에 헤브론의료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건강과 생계, 교육 등 전인적 돌봄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념 라코나는 노력했고 헤브론의료원 의료진같은 의사가 되는 꿈에 한 발자국 가까워졌습니다. 미국의 개인 후원자께서는 념 라코나의 합격소식을 듣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념 라코나는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전하고 캄보디아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의사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서 진료 중인 OMMA팀과 GMMA팀의 모습

호주 OMMA팀과 미국 GMMA팀이 캄보디아에 전한 사랑

캄보디아 헤브론의료원에 1월 15일(수)부터 22일(수)까지 의료봉사를 위해 호주 OMMA 팀과 미국 GMMA 팀이 방문하였습니다. OMMA (Oceania Medical Missions Association/이하 OMMA) 팀은 호주 의료봉사선교팀이고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이하 GMMA)는 미국 기독교 의료선교팀으로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의료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팀은 헤브론의료원에서 진료와 수술, 어린이 사역, 이동진료 등 다양한 봉사를 통해 캄보디아를 위로하고 치유하였습니다.



진료중인 배기안 부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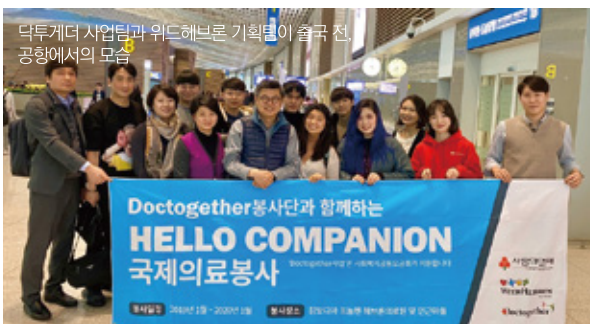
■ 헤브론의료원 부원장 배기안

캄보디아는 여전히 빈곤율이 높고 특히 의료보건 분야는 국제원조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며 의료접근성 역시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미국과 중국, 유럽과의 자유무역으로 매년 7%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낮은 의료보건 인프라 대비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무척 높아졌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 중 무료진료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는 환자들, 우리나라와 같이 심혈관질환, 암, 당뇨 등의 비전염성 질환으로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을 일상에서 대면합니다. 여전히 예방이나 건강관리에 취약한 이

환경에서 높은 기대에 부합하는 치료와 돌봄을 주기 위해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은 후원자와 후원기관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 노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캄보디아에서 금기시되는 부분(Taboo)이었지만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었습니다. 킬링필드를 겪은 노년층부터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병원을 찾는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더는 정신질환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감춰야 할 질환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도 월평균 약 240명의 환자들, 불안장애, 우울증, 기타 정신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보다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들은 환자들, 치료시기를 놓쳐 발과 다리를 절단하는 당뇨병 환자들, 산갈이 커진 종양을 가릴 수 없는 환자들, 캄보디아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소외된 환자를 돌보는 헤브론의료원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면을 빌어 제가 헤브론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봉사하며 인상 깊었던 환자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당시 27세였던 환자는 환시, 환청, 그리고 망상 증상이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내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매우 소란스러운 행동을 해서 주위에 함께 있던 환자들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주변의 날카로운 시선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환자를 바라보고 있던 보호자 신분의 젊은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먼 시골에서부터 환자와 동행해 병원을 찾아오신 선교사님은 환자의 감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자가 안정된 모습으로 진료실에서 나오면 웃는 얼굴로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해주시던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어 선교의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라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 환자는 치료 시작 두 달 후부터 안정을 찾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주일 분량의 약 처방만 가능하다는 환자들, 치료시기를 놓쳐 발과 다리를 절단하는 당뇨병 환자들, 산갈이 커진 종양을 가릴 수 없는 환자들, 캄보디아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소외된 환자를 돌보는 헤브론의료원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다투게더 사업팀과 위드헤브론 기획팀이 출국 전 공항에서의 모습

■ 위드헤브론 기획팀 | 프로 김진화

2017년부터 진행된 '다투게더 사업'이 2020년 1월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서울 아산병원 정훈용 교수팀과 추진된 이 사업은 헤브론의료원 의사가 아산병원 초청연수를 받은 인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다투게더팀과 함께 캄보디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문 시술 지원, 감염수칙 교육, 환자 사례연구와 세미나 주최, 그리고 지역주민 대상 마을이동진료 등의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의료수준을 높이는 교육 중심의 의료봉사는 보편적으로 헤브론의료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중심의

봉사와는 다른 개념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동진료를 통한 검사로 소화기계통 암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질병 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고 내시경 시술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부 의료진 200여명과 함께 사례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헤브론의료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전해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목격하였습니다.

학창시절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책 한 권을 읽고 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빈곤으로 고통받는 주변을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시작한 헤브론의료원에서 장기봉사에 이어 위드헤브론과 함께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빈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는 후원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존재를 깊이 인지하게 되었고 그들과 공생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헤브론의료원은 아픈 사람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고 더는 아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신겨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신발로 잘 달릴 수 있는 법까지 알려줄 수 있는 병원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료를 통해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그 환자의 전인적 지원으로 그들이 자기성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매년 성장하는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을 희망합니다.

국내에서 보낸 소중한 사랑을 소외계층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헤브론의료원 진료부장 이치훈

헤브론의료원 진료부 | 진료부장 이치훈

2년 전부터 지속되는 두통으로 힘들어 하는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현지 병원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약을 처방받아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비싼 CT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캄보디아에서는 보통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이 환자는 헤브론의료원을 찾아왔습니다. 진찰 결과, 긴장형 두통과 근막통증후군이 의심되어 통증 유발점 주사치료를 했더니 바로 두통이 사라져서 무척 기뻐하며 돌아갔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통증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근막통증후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 적시에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미한 지식으로도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더불어 미약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을 현지 의사들과 나누고 그들이 의학지식과 술기를 꾸준히 배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선진화와 국제원조를 통해 발전하고 있지만 낮은 의학교육의 수준과 높은 진료비로 인한 개인부담을 정책과 사회적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기엔 제한된 상황이어서 부단한 협력, 노력 그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가난한 캄보디아 환자에게 헤브론의료원은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가 마르지 않도록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의료진을 길러 내고 이들을 통해 가난한 환자에게 희망을 주고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헤브론의 소명(Calling)이라 생각합니다.

헤브론의료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거시적인 병원 존재의 이유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4개의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포함한 8년의 의과대학생활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립병원에서 4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수의 의대 졸업생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년 공부에만 전념해도 합격이 어려워 불합격의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합격을 하더라도 월급은 고사하고 오히려 수업료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즉, 캄보디아의 전형적인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아주 극소수의 졸업생만이 지원할 수 있고 가난한 졸업생은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헤브론의료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합격한 전공의에게 경제적 지원도 가능하기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모든 졸업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헤브론의료원 수련과정을 통해 기존의 의학을 넘어서 생명의 가치를 더 깊은 차원에서 고민하고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영의 생명도 구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료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은 '가난과 영적 무지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환자를 위해 최적의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한다'는 목표에 다다를때까지 기꺼이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0년 4명의 의사가 무사히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캄보디아 환자들에게 전인적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현지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헤브론의료원에 보낼 선적물품을 분류해놓은 모습

헤브론의료원의 COVID-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지원했습니다

위드헤브론은 선제적으로 헤브론의료원의 COVID-19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위생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COVID-19 위험으로부터 헤브론의료원 직원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10,000매를 전달하고, 모든 화장실에 손 세정제를 비치했습니다. 또한, 자체방역강화를 위해 방호복과 연막방역기를 전달했고 열감지카메라와 비접촉체온계를 전달해 헤브론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체온을 측정함으로써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 도착한 선적 물품이 각 부서로 옮겨지기 전 적재된 모습

■ 국내에서 보낸 소중한 사랑, 선적으로 전해집니다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선적은 저희에게 도전의 연속입니다. 2013년 9월 위드헤브론은 헤브론의료원의 의료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공식적인 통로로 보내기 위하여 설립되었기에, 여전히 선적은 저희의 주요한 책무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작업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 노동, 협력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물품 선별을 위한 현지와 후원자와의 소통, 정확성이 요구되는 인수와 검수, 통관작업과 결과 보고까지 매번 일관성 있는 작업으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수백 개의 박스를 포함하여 컨테이너에 가득 채워져 보내지는 후원물품을 볼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상되며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과 수혜자의 통로의 역할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도 헤브론의료원에 보내주시는 사랑과 관심이 최대한 많은 환자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2020 COVID-19 캄보디아



마스크를 쓰고 환자대기소에서 대기하는 환자



마스크를 쓴 환자와 헤브론의료원 환자대기소의 전경

헤브론의료원은 소외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부터 보호합니다

2020년 COVID-19라는 새로운 감염병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경제 악화로 말미암아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헤브론의료원에도 크고 작은 변화와 영향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던 캄보디아와 헤브론의료원의 지난 1년을 되돌아봅니다.

COVID-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3월, 캄보디아 정부는 입출국 제한 강화를 시작으로 4월 크메르 신년 7일 동안 지역 대 지역 간 이동제한령을 공표하였고, 지역 내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정부는 COVID-19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세금감면, 보조금, 대출보증 등 재정지원, 금리인하, 그리고 인프라 투자 및 산업지원 등 다양한 경제 부양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COVID-19의 여파로 주요 3개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캄보디아 경제 전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은 2020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2.0%와 -4.0%로 각각 전망했고,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캄보디아의 상황 속에서 헤브론의료원은 무료진료를 통해 소외계층을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환자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위험에 노출된 소외계층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이들의 고정소득 및 지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을 발생시킵니다. 이 결과로 소외계층이 다시 빈곤층으로 돌아가거나 빈곤의 되물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헤브론의료원의 존재는 COVID-19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병원 내 COVID-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빈곤층과 취약계층 환자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고비를 넘기고 위기를 극복하며 헤브론의료원을 찾는 환자를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간담이를 사이에 두고 약물 복용법을 설명중인 모습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간호사

COVID-19 대유행 속에서도 헤브론의료원은 본분을 다했습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환자 접수처



헤브론의료원 원무과 김혜경 선교사



환자대기소에 설치된 열감지카메라

헤브론의료원 원무과 | 선교사 김혜경

한두 달 지나면 찾아지리라 예측했던 COVID-19가 계속 확산 상태를 보이자, 헤브론의료원에서도 정문에서 모든 출입인의 체온을 측정하고 열이 나는 환자는 당직의사의 확인 후 단순 발열 환자와 열이 없는 사람만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3월 중순 이후 내원 환자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진료 전날 밤부터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환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며 '코로나' 발음이 '코리아'와 유사하여 캄보디아 사회에서 한국에서 시작된 질병이라는 소문과 오해로 한국 사람이 많은 헤브론의료원을 피한다고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수납직원 한 명은 COVID-19의 두려움과 아버지의 심한 반대로 말미암아 무단 퇴사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픔이 있는 민족이기에 소문에 민감한 문화를 이해하면서 직원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병원의 안전을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열대 지방에서 모기에 의해 발병하는 뎅기열과 치킨군야라는 병도 고열이 나는 병이기 때문에 열이 있는 환자가 오면 모든 의료진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방역복이나 정해진 동선 없이 고열환자 구분을 위해 대면으로 환자를 마주하고 체온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일반환자들의 진료를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효과가 없던 손 씻기와 청결 문제가 현지 의료인력들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현지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감염 관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한산한 프놈펜 국제공항의 전경



마스크를 쓰고 입국하는 캄보디아인

COVID-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증가

지난 1월 캄보디아 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월에는 확진자 수가 8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종교모임을 금지시키고 모든 교육기관에 잠정 휴교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도 COVID-19 음성 결과확인서를 요구했고 14일간의 의무 격리지침을 내렸습니다.



헤브론의료원 원무과 직원 Em Bunna

■ 헤브론의료원 원무과 | 직원 Em Bunna

3월은 COVID-19 유행으로 캄보디아의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상점, 기업, 학교 그리고 병원이 문을 닫았고 이동도 제한되었으며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던 기간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병원 폐쇄에 대한 권고가 없었기 때문에 헤브론의료원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건부 지침에 따라서 고열 환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대면하면서 전염될 수도 있다는 직원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COVID-19로 잠시 방문환자 수가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여전히 많은 환자가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놈펜 지역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지역이동을 금지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시골지역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방문이 뜸해졌고 환자 수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자신에게도 COVID-19 감염의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어 2주 자가격리를 하였는데 다행히 Dengue열로 판명이 되어 안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무과 직원들은 COVID-19 환자 선별과정에서 환자와 대면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사환자에 대한 타 병원 후송 관련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환자와 직원도 감염되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것에 긍지가 생겼습니다. COVID-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환자들이 방문하여 치료받고 행복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COVID-19로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7회 위드헤브론 정기총회

제 7회 위드헤브론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4월 9일, 제 7회 위드헤브론 정기총회를 김해수 이사장의 진행으로 개최하여 2019년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의 사업과 회계를 보고하고 심의했습니다. (주)SCL의 이상춘 회장이 새로운 이사로, 김우정 의료원장이 상임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 입장하기 위해 열체크하고 있는 환자



헤브론의료원
행정부장 정진석

■ 헤브론의료원 행정부 | 행정부장 정진석

2020년 4월의 캄보디아는 COVID-19 확산이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정상적인 병원운영의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지만 캄보디아의 문화를 이해하며 대처해 나가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 킬링필드 학살로 인구의 25퍼센트가 목숨을 잃은 역사의 비극으로 질병과 죽음에 더 예민한 캄보디아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 진료부와 행정부에서 캄보디아 직원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무료진료를 위해 밤을 지새우거나 이른 아침부터 방문하여 대기하는 환우들의 진료를 위해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및 병원 내 방역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밤낮으로 경비원들과 함께 환우 한 명 한 명의 체온 측정 후 입장시키고 실내 거리두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고열이 나는 환우는 개별대기소로 이동시킨 후 당직 의사에게 연락하여 재확인 후 입장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마스크 쓰기가 생소한 현지인들에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주며 일상생활 착용의 중요성을 홍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시설팀을 중심으로 주 1회 병원 전체 방역과 층별 책임자를 선정하여 1일 2회

이상 진료실, 입원실, 화장실 등을 방역하고 안내서를 숙지시켰습니다. 의심 환우 내원 시 진료부와 협력하며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에 빈틈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수납 창구에 칸막이를 설치하였고 얼굴 전체를 감쌀 수 있는 플라스틱 마스크를 자체 제작하여 의료진과 직원에게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접수와 수납 대기 시에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1m간격으로 바닥에 테이핑했고 의자의 간격을 두어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병원 내외의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전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병원에서 COVID-19 발생하지 않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헤브론의료원 시설팀
Nou Chanmakara와 그가 심은 나무

■ 헤브론의료원 시설팀 | 직원 Nou Chanmakara

2020년 4월은 캄보디아의 설날 '졸초남'은 새해의 첫날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헤브론의료원 직원으로 역사를 함께했지만, 전에 없는 COVID-19 확산은 최대 명절을 연기할 정도의 큰 어려움으로 계속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병원에서 함께 해주는 직원들과 한국에서 전해주는 사랑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설관리 매니저로서 헤브론의료원과 함께 성장하며 병원시설을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책임을 맡겨주는 운영진의 신뢰와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헤브론의료원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용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병원 뒤편 주차장 공터에 20볼짜리 나무 한 그루를 구매하여 심었습니다. 나무 한그루가 뜨거운 햇볕 아래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한 그늘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환자를 향한 한국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의 헤브론의료원으로 이어진 것처럼 저도 그런 도움의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20볼은 저에게 큰 돈이지만 한 그루의 나무가 병원과 환자들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워드헤브론을 통해 전달받은 마스크를 포함한 그 외 병원의 연막방역기는 병원과 환자, 그리고 직원을 지키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해주신 직원분과 한국의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I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헤브론의 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헤브론의료원 간호대학

■ 헤브론의료원 간호대학 | 학장 박순복

헤브론의료원 간호대학은 현재 3학년 36명과 새로 들어온 2학년 31명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한국, 미국, 캐나다에 계신 16명의 교수진이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간호지식과 함께 섬김의 자세로 간호전문직의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인재를 길러 내고자 애쓰고 있는데 학생들을 직접 만나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큼니다.

2019년 12월에 졸업한 2기생 전원이 국가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들 중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 한 명이 헤브론의료원에서 칭찬받으며 일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도 캄보디아의 우수한 병원에서 일하며 임상간호 경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시작된 학기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의자들도 대면수업을 통해 알 수 있는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파악할 수 없고, 간호이론 수업만큼 중요한 간호실습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3학년 중 기숙사생 11명과 외부 거주 학생 2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개인의 사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어서 큰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간호대학 실습실에서 실습하는 학생의 모습

■ 헤브론의료원 인사팀 | 직원 Da Vimean Oudom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질 때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 친척과 가족의 우려는 병원이라는 일터의 특성상 더 심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걱정이 컸지만, 직원들에게는 전염되는 것보다 전염으로 말미암은 병원의 폐쇄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병원을 폐쇄하게 되면 직원 중 일부는 직업을 잃거나 급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부분 대출로 삶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동제한과 주민의 염려로 내원환자의 수마저 감소하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안한 기류가 흘렀지만, 병원 운영진의 리더쉽과 한국에서 전해오는 배려와 사랑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 한 명의 확진자 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활동에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여러 의료진과 봉사자가 방문하여 더 많은 환자를 함께 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호대학 실습실의 전경



협약식을 체결한 헤브론의료원 김우정 의료원장과 한국사랑나눔공동체 이은덕 이사장

협력하여 더 큰 꿈을 꾸니다.

한국사랑나눔공동체와 업무협약 체결

위드헤브론과 사단법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는 상호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헤브론의료원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인도차이나반도 저소득국가를 위한 보건의료지원과 헤브론의료원의 전문의약품과 물품지원을 협업하기로 하였습니다.

■ 한국사랑나눔공동체 | 이사장 이은덕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과 함께 소중한 나눔으로 캄보디아를 힘껏 돕고 계시는 여러분께 처음 인사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사랑나눔공동체 이사장 이은덕입니다. 지난 해는 COVID-19에 빼앗긴 일상이 그리웠지만 다가온 신축년 새해에는 다시 일상을 되찾고 밝은 미래를 되찾을 것입니다.

한국사랑나눔공동체는 아름다운공동체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과 협력하여 캄보디아가 속한 인도차이나 반도에 안부를 기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여러 제약회사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약품부터 국가 발전에 따라야 다양해지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전문 약품까지 지원하는 등 활동을 이어갑니다.

2020년 5월에는 더 많은 소외계층 환자를 돌봄으로써 인도차이나 반도 보건사회 및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함께 이루고자 위드헤브론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상호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전문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위드헤브론과 한국사랑나눔공동체가 협력하여 큰 목표를 바라보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후원자님과 협력기관께서 주시는 소중한 나눔은 캄보디아의 소외계층 환자와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캄보디아가 미래를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외과수술을 통해 헤브론은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과 함께 외과수술 중인 흥관희 외과의

■ 헤브론의료원 진료부 | 외과의 흥관희

현재 캄보디아의 공공의료 인력 중 외과 및 마취과 전문의 수는 총 702명입니다. 대부분 전문의는 국립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가 진료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환자당 수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요. 이러한 취약계층 환자가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헤브론의료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진료과의 의료봉사팀이 방문하여 수술을 집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 의료봉사팀 없이 헤브론의료원의 현지 의료진만으로는 다양한 외과수술을 집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과의 이영돈 원장님이 계셔서 이전보다 수술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부서별 외과 및 마취과 전문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 당일 방문을 취소해 대기하던 환자의 수술이 취소되는 상황, 수술을 위해 준비해둔 의료소모품이 감염되어 전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는 많지만 의료원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더는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2020년 2월 마취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었고, 우리 의료원은 상시 수술이 가능한 소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헤브론의료원 식구로 들어온 마취과의와 함께 저는 대장암, 탈장, 그리고 항문 질환 위주의 외과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환자와 수술 사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지난 1년간의 봉사를 감사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 봉사를 마무리한 후 현재 저는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한시적 봉사에 그치지 않고 헤브론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를 지속해서 도울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COVID-19 상황 탓에 올해 안으로 계획했던 재방문은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싶지만 위중한 환자들이 눈에 아른거려서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다시 헤브론의료원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다음 번에는 수술 봉사와 함께 전문의를 위한 교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수술 집도가 가능한 유능한 의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재방문을 기약하며 놓고 온 저의 밥술과 침구류, 그리고 그리운 환자들과 하루빨리 재회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마취를 준비하는 현지 의료진



수술방의 모습



헤브론의료원에 안 수술기기를 설치하는 모습

캄보디아 눈 건강을 위한 소중한 나눔, 안 수술기기를 후원받았습니다

여의도 JC빛소망안과에서 헤브론의료원 안센터에 안 수술기체인 야그레이저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캄보디아는 강한 자외선의 영향으로 안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녹내장과 같은 질환은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낮은 의료수준과 열악한 환경으로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야그레이저 후원을 통해 헤브론의료원은 도움이 필요한 캄보디아 안질환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것을 기대합니다.

■ JC빛소망안과 | 원장 최경배

안녕하십니까, JC빛소망안과 원장 최경배입니다. 1999년 12월 첫 해외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당시 송파구에 있는 오륜교회와 협력했었는데, 그 후로도 캄보디아에서 의료선교를 여섯 번 더 진행했습니다. 해외로 의료선교를 다니면서 인연을 맺게 된 구현서 선교사님께서 도와주셔서 20년 만에 다시 캄보디아로 의료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있어 캄보디아는 해외 의료선교를 처음 시작한 곳이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 특별한 곳입니다.

캄보디아는 강한 자외선으로 안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케이스의 백내장 환자를 수술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환자는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 수술을 계속 미뤄왔고 이로 인해 수술 시기를 놓쳐 백내장이 악화되면서 거의 실명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어렵게 양 눈을 모두 수술하였는데, 당시 안과 전용 수술실이 없어 종합수술실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안과 전용 수술실이 한두 개만이라도 있다면 이처럼 어려운 백내장 수술뿐만 아니라 제 전문 과목인 망막수술, 각막 이식수술, 눈물길 수술까지 더 다양한 치료와 수술이 가능할 텐데, 다행히 그 환자는 수술 결과가 좋았지만 여러모로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기회가 주어진다면, 치료받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 언제든지 선교봉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야그레이저는 다양한 안과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의료기기입니다. 헤브론의료원 방문 당시 설치된 야그레이저의 고장으로 수술진행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헤브론의료원에서 야그레이저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으로 고장난 기기를 가져왔지만,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 부품 수급과 수리 가능한 곳이 없어 고치지 못했습니다. 안과 수술은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진료 받은 환자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헤브론 의료진이 좋은 기기가 갖춰진 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새 기기를 구매하여 보냈습니다. 현지에서 안과 수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많은 환자가 깨끗하고 밝은 시야로 아름다운 세상과 마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 더 많은 소외계층환자를 치료하고 싶습니다



헤브론의료원 (전)진료부장 이형석

■ 헤브론의료원 진료부 I (전)진료부장 이형석

인턴 시절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환자의 처방 약물, 검사 등의 오더를 종이로 수기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결제된 종이 처방전은 간호 스태프에 의해 약국과 검사실로 전달되어 약의 조제 및 투약과 검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환자진료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나 의료진의 시간할애가 많아 의료서비스 본질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이러한 수기 문서화 작업이 의사 오더의 전달을 위한 처방전달시스템(OCS, Order Communication System), 의무기록을 위한 전자 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영상정보의 저장 및 표시를 위한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Communication System)이라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선진국의 병원들은 의료, 행정, 재정 등 병원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은 막대한 시간, 노력 그리고 재정이 필요하지만, 병원 내의 의료 및 행정관리의 편리와 성과, 부서 간 소통, 재무/자재 관리와 병원 경영을 분석하는데 기회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유익합니다. 작은 병원 규모에서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상용화된 병원정보시스템을 시스템 제공자로부터 구매해야 하지만 각 병원의 실정에 맞게 제작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 작업에도 여러 협업이 필요합니다.

2018년 1월, 헤브론의료원은 제한된 재정과 인력으로 말미암은 개발이 어려워 상용화된 병원정보시스템을 구매하여 OCS와 EMR을 중심으로 병원의 특수성을 시스템에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시스템 구조와 전산화라는 새로운 도구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인터페이스의 불편함, 잦은 시스템 에러 등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조금씩 익숙해지고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초기 도입부터 제한적이었던 통계 부분은 자료수집 기능을 추가하며 시스템 제공업체의 협조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정보시스템이 의료와 행정, 재정, 자재 등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병원운영의 분석, 평가 및 앞으로 운영방향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도모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병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과 관심이 지원된다면 앞으로 헤브론의료원의 유형과 무형 자산으로 축적되어 중추적인 업적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헤브론의료원 진료지원부장 김원식

■ 헤브론의료원 진료부 I 진료지원부장 김원식

헤브론의료원은 여러 후원을 통해 운영되는 비영리병원으로서 운영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산출하여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에서 유용성과 성과를 기대하는 영역은 환자의 정확한 자료수집을 통한 정보 축적입니다. 자료수집과 세심한 분석이 가능할 때, 할인과 무료진료를 통해 어떤 편익이 있었고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지원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지원받은 후원물품과 치료비를 가장 필요한 환자에게 합리적으로 전달하고 중복된 지원을 피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 정보 분석을 통해 지역 건강 검진이나 예방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정보시스템은 한 환자의 치료만큼 중요하고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전히 시스템 다운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정전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병원정보시스템은 매년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이 지향하는 목표는 개발도상국이라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그 지점이 뚜렷하기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치료부터 치료 후 소외계층의 전인적 지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병원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심장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환자

**헤브론의료원 심장센터가 맺은 열매,
현지의료진이 성인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였습니다**

COVID-19의 여파로 심장수술팀의 헤브론의료원 방문이 어려웠지만, 헤브론의료원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 의료진이 협력하여 성인환자 10명의 심장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였습니다.



대형버스와 헤브론의료원 직원의 모습

**캄보디아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
이동진료용 버스를 후원받았습니다**

서울영동교회 후원자님과 샘물호스피스선교회에서 헤브론의료원으로 대형 버스(34인승)를 후원해주셨습니다. 대형 버스는 헤브론의료원의 지역사회를 위한 이동진료 활동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헤브론의료원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뿐만 아닌 의료 소외지역에 직접 찾아가 치료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흉부외과 부교수 최창휴

가천대학교 길병원 흉부외과 | 부교수 최창휴

제가 의사의 길을 걷고 흉부외과를 선택한 이유를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현재도 개인의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의대 재학 중 방학기간에 서울대 심장병리 서정욱 선생님 교실에서 한달 가량 소아심장 부검자료를 도와드리며 일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기형과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진들의 노력이 감동적이었고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껴 소아심장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동안 중국,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많은 나라를 다녔고 그곳에서 선정된 심장병 환자들을 국내로 초청해 500여명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캄보디아에서 개인 해외봉사로는 처음으로 심장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헤브론의료원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의 설립정신과 마찬가지로 소외계층환자를 돕는 것은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수술 하나하나마다 가슴이 뛰며, 특히 수술 후 힘차게 다시 뛰는 심장을 보면 기쁨과 함께 감사한 마음에 다시 가슴이 뜹니다. 그간 진행해온 수술 중에서 특별히 2019년 1월 첫 방문 수술기간 중 우연히 입원해 진단된 선천성심질환 환아를 일정상 수술하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5월 재방문 시 다시 찾아 수술한 일과, 2차 방문시 수술한 환아중에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아 수술을 완결하지 못한 채로 돌아 왔다가 그 해 9월 한국으로 초청해 무사히 수술을 완료했던 일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현재 COVID-19의 여파로 헤브론의료원을 포함해 해외 의료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역시 해외 환아를 초청하여 수술해왔지만 작년은 거의 시행하지 못 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COVID-19 상황이 진정되겠지만 앞으로도 이전처럼 자유로운 해외이동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지 의료진이나 상주 의료진들의 역량 강화와 기술협력을 통해 통해 수술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캄보디아 의료인재양성, 자립이란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환자를 돌보는 임승주 간호부장

■ 헤브론의료원 간호부 | 간호부장 임승주

짧지 않은 시간 함께한 간호사들이 헤브론의료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고 온 힘을 다해 교육하며 정들었던 가족 같은 직원들의 이직은 다른 병원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안도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주어진 도구로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겠다고 매번 다짐하게 됩니다.

10여년동안 헤브론의료원 간호부를 위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설립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캄보디아 현지 간호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동적이고 교육열이 높지 않아 기본기를 갖추기 어렵고, 학습에 대한 사고가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을 전문 간호사로 수련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의료원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부 생리, 기본 간호, 약품, 의학용어 등 의료기본지식을 중심으로 신규간호사들을 교육하고 경력 간호사들에게는 보수교육과 의사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업무조차 못했던 교육자료나 업무 안내서 작성 또한 조금씩 기틀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1년 사이 간호사들의 이직으로 7명이 교체되었지만 변함없이 헤브론의료원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간호사들이 있어 병원의 미래는 밝습니다. 간호사들의 노력으로 병원이 성장하는 만큼 이제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으로 물가와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 헤브론의료원은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비영리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비해 아직은 급여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헌신을 통해 병원이 발전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그들이 전문 의료인력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동기 부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헤브론의료원 진료부 | 레지던트 Hoer Nylomon

지난 2년 넘게 헤브론의료원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한국 의료진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은 멈춤 없이 매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큐티(Quite Time)을 통한 성경공부는 헤브론의료원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종이 문서로 환자 정보를 작성하고 수집하는 다른 캄보디아의 병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헤브론의료원은 병원정보시스템(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에 있어 한발 앞서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 알아야 할 환자 관련 정보를 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스템 사용 시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병원정보시스템은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 성장하면서 환자들의 요구도 많아지고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응급의학과가 없어 치료가 급한 환자가 늦은 밤 방문했을 때 다른 큰 병원으로 이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2020년 힘들었던 한해를 돌아보며 헤브론의료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증환자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캄보디아의 아픈 환자들의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병원의 운영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직원 모두와 후원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헤브론의료원 진료부 | 레지던트 Lim Youhok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한 진료 경험과 지식습득은 저에게 큰 행복과 사랑 그리고 일의 의미를 전해줍니다. 주어진 역할과 짜여진 스케줄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여러 학문분야를 팀으로 참여하여 토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견문이 넓어졌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소그룹 스터디 모임과 병동실습을 통해 대학에서 배웠던 여러 학문을 접목시켜 퍼즐을 맞추듯 저의 지식으로 습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환자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여러 한국 의사들이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섬김, 헌신, 그리고 정직함은 우리 모든 직원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우리 병원의 장점입니다. 캄보디아를 이끌어가는 헤브론의료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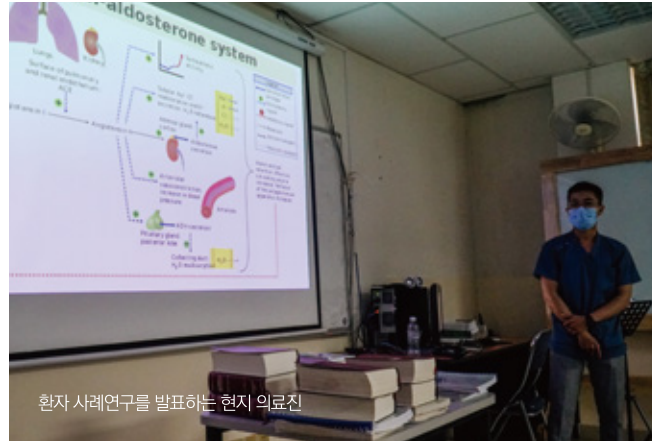
3년간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마치고 헤브론의료원 현지 의료진과 여행을 떠난 레지던트

헤브론의료원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의료인은 캄보디아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헤브론의료원 레지던트 4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신규 레지던트 4명을 모집했습니다. 헤브론의료원 레지던트는 전문 의료기술과 더불어 의료원의 미션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캄보디아의 소외계층환자를 돌보는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레지던트 교육 현장



환자 사례연구를 발표하는 현지 의료진



헤브론의료원의 오전 회진 현장

봉사와 헌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심장수술중인 헤브른의료원 의료진



수술 도구



수술을 준비중인 현지의료진



수술을 준비중인 현지의료진



헤브론의료원 간호대학 강의실

캄보디아 간호인력을 양성을 위해
상록수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지원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 인재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실천하는 상록수장학재단에서 캄보디아 왕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을 통해 헤브론의료원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에게 장학금 9,970,8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헤브론의료원 간호대학 3기 명단

| 병원 담장 너머의 캄보디아를 품습니다



CAP 아동, 니 분팀의 가정에 방문한 CAP팀 직원 Soun Sady



헤브론의료원에 내원한 CAP 아동, 립 티아라
아동을 인터뷰하는 CAP팀 직원 Soun Sady의 모습



CAP 아동, 케오 셀라

■ 헤브론의료원 선천성심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Care After Program)팀 | 직원 Soun Sady

COVID-19 확산과 전례가 없는 홍수 피해로 선천성심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Care After Program)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한된 환경에서의 소중한 만남과 소통이 더 의미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지침으로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는 선천성 심장수술을 받고 회복하였지만 발달과 학업의 진도가 더더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학습으로 수업을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더불어 관리 대상의 가정의 30%는 스마트폰이 없고 인터넷 연결조차 생소하여 교육지원에서 큰 도전에 봉착하였습니다.

홍수피해는 관리 대상 아이들의 가정방문을 통해 더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홍수로 14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사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과일과 논밭이 큰 피해를 입었고, 공장과 상점의 폐쇄로 실직이 늘어나 서민들의 피해는 가중되었습니다. 풍 리사는 월세 4만원을 낼 수 없어 친척이 사는 라탄키리라는 곳으로 임시 이동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찬 리타의 경우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매월 15만 원을 벌었지만, 실직 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소통을 이어오며 홍수로 직접적인 큰 피해를 받은 5명에게 특별지원금을 가정에 필요한 생활 물품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체크를 위해 병원으로 초대하여 가정방문을 대신하였습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 후의 환자까지 돌보는 CAP사업을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더 빛을 받았던 CAP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AP 아동, 사문 슬레이리스

■ 위드헤브론 기획실 | 실장 박명지

COVID-19의 등장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가운데,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의 소임을 돌아보고 고민해 봅니다. COVID-19를 겪으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었습니다. 지난 13년간 우리 헤브론의료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성장해 왔습니다. 이동의 제한과 두려움으로 병원 문턱을 밟기가 더욱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빈곤으로 치료 후 삶의 유지가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병원 담당 너머의 상황을 조금 더 풀어내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질병 예방활동과 헤브론의료원에서 수술받은 아동들이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천성심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 Care After Program) 확대를 통해 치료와 돌봄의 손길을 넓혀보려 합니다.

먼저 국내 전문의료팀과 헤브론의료원 의료인력 간 협력하여 지역병원과 보건소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위생 수칙, 감염병 예방 및 관리방안을 교육하여 지역사회로 COVID-19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의료시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7년 12월부터 시작한 선천성심질환 아동 사후관리 프로그램(CAP, Care After Program)을 확대하여 헤브론의료원에서 수술받은 아동들이 마을과 학교로 복귀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CAP센터를 조성하여 아이들의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을 통해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보호자들을 위한 심터와 교육까지 가능케 할 수 있는, 통합적 돌봄과 지원이 가능한 헤브론의료원을 꿈꿔봅니다.



대규모 홍수로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긴 모습



홍수지역으로부터 구출되는 캄보디아 일가족

캄보디아에 범람한 대규모 홍수

10월의 대규모 홍수로 캄보디아는 도로가 물에 잠기고 보금자리가 침수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I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아픔을 어루만지겠습니다



헤브론의료원
병원장 이영돈

■ 헤브론의료원 병원장 이영돈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간암, 폐암, 유방암 순입니다. 상기 환자 중 약 70%의 암환자가 암이 상당히 진행되어서야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헤브론의료원에 오는 환자들도 대부분 3, 4기 암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1만 5천 명이 넘는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지만 암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장비와 기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꼭 필요한 PET CT 촬영이나 골 스캔 검사 등이 불가능하며, 암의 조직에서 꼭 검사해 보아야 하는 호르몬 수용체, 면역조직화학 분석 등도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계는 캄보디아 내 2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일 년에 1,000여 명의 환자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 의료보험제도가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고비용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치료의 근간이 되는 고가의 항암제, 호르몬치료제, 면역치료제의 사용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브론이 캄보디아 암환자들을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헤브론의료원에서는 암의 진단을 위하여 초음파 검사, 장 내시경 검사, 세침흡인 세포검사, 총조직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진보된 CT 스캐너를 도입하면 정확한 진단에 일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헤브론의료원에는 훈련된 병리과 의사가 있어 빠른 진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만, 필요한 시약확보의 어려움과 환자의 부담

때문에 병리 조직에 있어 필요한 호르몬 수용체, 면역조직화학 분석 등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은 암환자들을 위해 항암제 치료, 수술적 치료, 간암 화학 색전술, 제한적인 호르몬 치료를 진행 중입니다. 항암제 치료는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하고 있고 치료가 어려운 암은 외부 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유방암, 대장-직장암, 갑상선암, 위암, 피부암 등이 있는데 대부분 환자가 진행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갑상선암과 피부암을 제외하곤 수술만으로 완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간암 화학 색전술 경우, 캄보디아에서 가장 흔한 간암을 치료하기는 비교적 쉽지만 색전술 시행을 위한 병원 내 Angio-Machine의 수리가 COVID-19로 지연되면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간암환자가 많아서 간암 색전술은 지속해서 시행되어야 할 치료입니다. 호르몬 치료는 유방암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조직 검사를 바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암의 포괄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를 위한 진단을 위한 장비와 기술,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이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곧 새로운 CT 스캐너를 도입하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꼭 필요한 암센터 건립이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기도하면 그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브론의료원의 (구)CT 스캐너



환자를 돌보는 이영돈 병원장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현지 의료진



홍수가 발생한 캄보디아의 전경
*사진출처: 크메르 타임즈

캄보디아 긴급구호자금 지원

위드헤브론은 헤브론의료원으로 COVID-19와 홍수피해를 위한 긴급구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헤브론의료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약자로, 지난 10월 예기치 않게 찾아온 홍수뿐만 아니라 COVID-19의 여파로 생계를 잃거나 상황이 어려워진 이들이 많습니다. 위드헤브론은 헤브론의료원이 지역사회 주민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13,398,909원의 홍수 피해 구호자금을 긴급히 전달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캄보디아,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합니다



헤브론의료원 의료원장 김우정

헤브론의료원 의료원장 김우정

2006년 1월, 특별한 계획 없이 단순한 봉사활동을 꿈꾸며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에 마련된 작은 클리닉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의사는 저와 캄보디아 일반의 1명뿐이었지만 찾아오는 환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기대를 하고 찾아왔지만, 저와 캄보디아 일반의 1명뿐인 상황에서 막상 해줄 수 있는 치료에는 한계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 해 방문한 흉부외과 교수가 수술 공간을 마련해 주면 캄보디아와 한국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주말에 수술을 해주고 갈 수 있다는 제안을 해주어 몇 분의 선교사들과 함께 헤브론의료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잘하려면 지금보다는 규모를 갖춘 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헤브론의료원이 외부에 알려져 많은 단기 의료봉사 팀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설립 초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 헤브론의료원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사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임원환자들을 돌보며 가정의학과 전공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암과 갑상선암 그리고 유방암 같은 암질환의 치료가 가능하고 어려운 심장수술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시내에는 영리병원들이 속속 들어와 의료양극화도 심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헤브론의료원을 찾아오는 가난한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의료인력을 잘 교육하는 일과, 훗날 현지인력의 역량이 커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병원을 그들에게 이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COVID-19 때문에 단기 의료팀이 방문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몇 년 동안 준비하던 인공신장실과 호스피스 병동의 가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일과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속히 COVID-19가 종식되어 출입과 활동이 자유로워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모두 성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미참의료인상을 수상한 김우정 의료원장

“맡겨진 책무를 담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헤브론의료원 김우정 의료원장, 한미 참 의료인상 수상

헤브론의료원의 김우정 의료원장이 지난 12월, 서울특별시사회가 주관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한미 참 의료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우정 의료원장은 캄보디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음에 감사를 표하고 아프지 않은 캄보디아를 위해 앞으로도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헤브론의료원 행정부 행정부장 Huoy Kea

■ 헤브론의료원 행정부 | 행정부장 Huoy Kea

2009년 6월 6일 헤브론의료원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당시 크지 않은 공간에서 김우정 의료원장님을 돕는 코디네이터로 진료수납, 환자관리, 정부 관련 서류제출 등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뿐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한국선교사와 봉사자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으로부터의 후원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매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신기하고 궁금합니다. 어떤 나라이기에 캄보디아에서 이런 봉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어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김우정 의료원장님을 10여 년 넘게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문제부터 한국에서 선적을 전달받는 과정, 낮 동안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방문자들을 공항에서 환송하는 일까지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도우며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본받고 싶은 마음에 제게는 헤브론의료원이 직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12명의 스태프로 시작되었던 병원이 이제는 150명이 되었고 저는 행정부장이 되어 2021년부터는 병원행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여러 한국선교사님의 권한 안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제게 주어진 책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현지직원을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될 것이라는 목표가 이제는 아주 먼 미래가 아닌 것 같아 승진되었다는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더 큼니다. 아직은 한국 운영진보다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지만,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캄보디아인을 치료하는 병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캄보디아는 매년 발전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들어오는 선적에 대한 통관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6주 이상 소요됩니다. 정부의 병원 운영과 회계에 대한 감사도 더 강화되면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기관들의 소식도 들곤 합니다. 이런 대외적인 일로 병원의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 또한 저의 임무입니다. 어려웠던 한해 그래도 하루도 쉬지 않고 병원의 모든 직원과 선교사님과 함께 환자를 돌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워드헤브론 식구들과 한국의 후원자들께서 보내주신 큰 사랑과 후원에 감사를 전하며 하루빨리 캄보디아에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헤브론 2021

겨울의 한파를 이겨내고 푸르름이 만개하는 봄날의 새순처럼
캄보디아가 피어날 그 날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헤브론은 더 많은 소외계층 환자를 치료하겠습니다



수술받은 아동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겠습니다



헤브론의 선한 영향력을 캄보디아 전역에 전하겠습니다

Mission



소외계층환자 치료



Care After Program
사업 확대



질병예방 및 인도적 지원



■ 소외계층환자 치료

목표 모금액: 837,000,000원

현지 의료진이 수술 가능한 외과수술의 지원 영역을 확대해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암 환자의 진료 및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 인공투석실을 원활히 운영하여 캄보디아의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눔을 모으겠습니다.



■ Care After Program 사업 확대

목표 모금액: 85,000,000원

헤브론의료원에서 수술받은 심장수술 아동에서 나아가 일반 외과수술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센터를 조성하여 치료를 넘어 아동의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통합적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 질병예방 및 인도적 지원

목표 모금액: 313,000,000원

의료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하여 다양한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교통사고 등 사회 재난과 홍수,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Cure, Care, and Cherish All!

■ 위드헤브론 사무국장 진은경

첫 아담 이후 인류가 이루어 온 궤적과 마지막 아담(고전15:45) 이후 개인과 다중의 회고는 역사에 대한 통합적인 회상(Integrative reminiscence)으로 성공적 지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매년 진행하는 연차보고로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의 책무에 대한 회고는 주어진 임무수행의 길 위에서 있는 저희에게 설립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만들어 줍니다.

위드헤브론과 헤브론의료원은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성숙시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3년간 뒷밭에 파종한 사랑의 씨앗은 선한 의도, 순전한 기도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통해 청정한 잎과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외부와 내부 환경 속, 그 결실이 지속하기 위해서 견비되어야 하는 부단한 노력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실을 직관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 선한 인력의 증강, 그리고 후원과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은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귀 기울이며 감당해야 하는 책무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지구촌의 아름다운 지평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매년 수만 명의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 지원과 소외계층의 존엄성 회복과 성장을 돕는 포괄적인 돌봄이 그 영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자와 후원기관, 그리고 협력기관이 제공해 주시는 생명수가 오늘도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150여 명의 직원과 선교사님을 통해 여전히 끊임없이 곤비한 소외계층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헤브론 공동체 모두가 소망하는 가시적 확장과 질적 성숙에 이르기 위해 지금과 동일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헤브론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브론을 지켜주신 후원자(가나다순)

Daniel Chang, John Juhn, Dr.Nylomon, Dr.Dola, Oun yem, Thya Ktech, Jeongok G.Logan, 강박성, 강선구, 강신동, 강유권, 강정원, 강지은, 강지훈, 강진호, 강태근, 강현주, 계인숙, 고광련, 고광민, 고나현, 고성민, 고현식, 고혜원, 구선희, 권우현, 권유란, 권유진, 권정혜, 권조인, 권충수, 김경래, 김경수, 김경애, 김경원, 김구, 김남수, 김대현, 김량희, 김미경, 김미중, 김미정, 김민경, 김민욱, 김바름, 김보경, 김부의, 김삼선, 김상훈, 김석원, 김성은, 김성희, 김세준, 김수, 김순자, 김순희, 김연아, 김영균, 김영숙, 김영정, 김영희, 김옥선, 김옥현, 김용광, 김용만, 김용혜, 김우정, 김유찬, 김유태, 김윤정, 김신우, 김정원, 김종성, 김종호, 김종민, 김종현, 김지민, 김지현, 김진성, 김진숙, 김진현, 김진화, 김재순, 김초신, 김춘식, 김하나, 김해수, 김현관, 김현아, 김현준, 김혜수, 김홍구, 김화진, 김희성, 남경옥, 남건희, 남희경, 노진태, 도병원, 도정식, 도혜정, 류상철, 김영심, 민원기, 박경희, 박노진, 박동진, 박명희, 박미옥, 박미자, 박민호, 박보림, 박봉규, 박상은, 박석산, 박선규, 박성수, 박성희, 박소현, 박수영, 박순복, 박순옥, 박신영, 박양일, 박연희, 박영태, 박옥심, 박요셉, 박용진, 박원상, 박정순, 박정자, 박정희, 박종민, 박종숙, 박종후, 박준범, 박지영, 박지혜, 박찬용, 박정자, 박현희, 박형순, 박효정, 방주영, 박봉자, 박승천, 배재숙, 배태옥, 서동원, 서영희, 서예은, 서인혜, 서해윤, 서홍배, 손해정, 송신자, 송주은, 송향이, 신미정, 신병진, 신은경, 신혜숙, 심기태, 심영택, 안남희, 안미옥, 안병모, 안성은, 안수민, 안순홍, 안용순, 양성민, 양성모, 양인숙, 양재용, 양해석, 양혜원, 엄기태, 엄민선, 엄세은, 엄순애, 엄혜경, 오귀영, 오정숙, 우인기, 우제영, 우제혁, 우주원, 원창희, 유경, 유수호, 유순덕, 유승진, 유장렬, 유정준, 유지희, 유춘화, 윤동근, 윤명희, 윤서희, 윤석호, 윤영해, 윤원선, 윤윤희, 윤재원, 은현정, 이광수, 이근영, 이근우, 이기분, 이길찬, 이동주, 이범구, 이병례, 이보민, 이상중, 이석호, 이선경, 이성숙, 이성화, 이상선, 이상원, 이연희, 이영애, 이영자, 이영무, 이은경, 이은정, 이연경, 이인, 이인순, 이재민, 이재영, 이정록, 이정은, 이정찬, 이정희, 이종숙, 이주희, 이지영, 이진희, 이창섭, 이종애, 이종은, 이태훈, 이한식, 이현정, 이혜리, 이화영, 이효정, 이희목, 이희승, 임덕호, 임명숙, 임수현, 임신자, 임혜지, 오수민, 장대찬, 장덕주, 장순덕, 장윤수, 장현승, 전민진, 전민진, 전병현, 전순애, 전은순, 전은영, 전지선, 전형진, 전혜식, 정슬아, 정영주, 정재훈, 정효숙, 정희옥, 조남돈, 조누리, 조미혜, 조민주, 조선경, 조성연, 조시환, 조이리, 조윤경, 조인환, 조일타, 조정규, 조정순, 조현석, 조현정, 주광영, 주채련, 진영민, 진옥자, 진종민, 진종현, 차상훈, 차순영, 차유희, 천명희, 최승규, 최이영, 최영근, 최영희, 최인자, 최정선, 최준석, 최희식, 표광길, 표창우, 한명란, 한성태, 한에스더, 한연희, 한영신, 한영희, 한용택, 한은숙, 한중자, 함영신, 황현주, 하지수, 현영호, 홍관수, 홍명자, 홍미희, 홍부희, 홍성실, 황경아, 황민복, 황영자, 황인호, 황혁이, 그리고 이름없이 함께 해주시는 귀하

헤브론에 큰 힘이 되어주신 협력기관(가나다순)

(사)인간의대지, (주)기성인터내셔널, (주)더와이비메디칼, (주)새련산업, (주)신동해홀딩스, (주)아쿠인텍, (주)에스지씨, (주)엔씨디지텍, (주)월드인전진단, (주)전북은행, (주)하은메디스, (주)한날, 가이드카, 가톨릭의대 총동문회, 가톨릭중앙의료원신용협동조합, 강남중앙침례교회, 경기고60신우회, 경기고67신우회, 경인장로교회,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고현교회 의료선교회, 광주동성교회, 광주벚엘교회, 국민은행, 금호교회, 김해제일교회, 남서울교회, 남포교회, 대한예수장로회 기본소식교회, 동아ST, 명이비인후과의원, 모우사랑, 모동교회, 문경새재교회, 미소랑치과의원, 비울남선교회, 변종인 소아과의원, 상록수장학재단, 사랑누리선교회, 산지교회, 시드니한인교회, 샘물호스피스병원 선교회, 서울노회, 서울푸른소나무, 선한목자교회, 세빛교회, 송정교회, 수영로교회, 수원평안교회, 수지수정교회, 시드니새순교회, 신성글로벌, 양재은누리교회, 에이스싱가, 여수서광교회, 왕십리중앙교회, 요시아남선교회, 우양재단, 원당약국, 은혜약국, 이글스네스트 파운데이션, 이레미즈 외과, 익산영복교회, 일산동안교회, 일산예일교회, 일산총신교회, 전북대학교, 제자광성교회, 종암교회, 주식회사 한독, 주안교회, 주안장로교회, 정릉교회 청년팀, 자생병원, 창녕미동교회, 청주은광교회, 충무교회, 목동평광교회, 캄보디아 한인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한국누가희, 한국사랑나눔공동체, 한국에자이(주), 환인재약(주), OMMMA&GMMMA, MMC of Hongkong, Michell, EMAS, Everyday Church, Raksa Akoma Foundation, forHISglory, JC빛소망안과, London Korean Christian Church, Silver Missions Fellowship, Bethel Korean Church



WithHEBRON
위드헤브론

HEBRON MEDICAL CENTER

2021년의 헤브론은 소중한 나눔과 사랑을 모아
캄보디아의 소외계층환자 치료 확대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위드헤브론 공식 카카오톡 채널추가를
통해 헤브론의료원의 소식을 생생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2006호

Tel 02-2273-3395

E-mail admin@withhebron.com

Website www.withhebron.com